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하나?



초기진화는 불이 난 직후에!

행동 1 신고

큰 소리로 [불이야!]하고 고함치자

-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이웃에게 알린다. 소리를 지르지 못할 경우에는, 비상벨이나 소리가 나는 것을 두드린다.
- 아무리 작은 화재라도 119번에 신고.

행동 2 초기진화

불이 난 직후가 승부

- 불이 아직 옆으로만 번져 있는 상태라면 진화는 가능.
- 컵에 있는 물이나 방석 등, 가까이 있는 물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자.

행동 3 피난

불이 키 높이를 넘으면 즉시 피난

- 피난시에는 불이 난 방의 창문이나 문을 잠그고 공기를 차단. 신속하게 행동한다.

위험을 느끼면 즉시 피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의 위험을 느꼈을 때에 한시라도 빨리 피난하는 것입니다. 복장이나 소지품 등에 집착하지 말고, 다음의 행동포인트를 생각하며, 되도록 빨리 피난해 주십시오. 또한, 일단 빠져나오면, 절대 되돌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주의하며 행동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 「정말로 무서운 것은 연기입니다!」를 참조).



2층에서 탈출할 때는

로프나 줄사다리를 사용하여 피난. 시트나 커튼을 연결한 것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뛰어 내릴 때는, 이불이나 매트리스 등 쿠션작용을 하는 것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빌딩에 있을 때는

위층에서 불이 난 경우는, 계단을 사용하여 아래로 대피합니다. 아래층에서 불이 난 경우는, 바깥 계단을 통해 대피합니다. 만약 아래로 대피할 수 없을 때는, 옥상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단숨에 달려서 빠져 나갑시다. 물에 적신 시트를 몸 전체에 감으면 효과적입니다.

지하상가에 있을 때는

벽쪽에 몸을 붙이고, 연기로부터 재빨리 빠져 나갑니다. 출구는 약 60m 마다 있으므로, 벽을 따라서 대피합니다. 폐쇄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직원의 유도에 따라 행동합니다.

백화점 등에서는

백화점이나 호텔 등의 상업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점내의 방송이나 유도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비상구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는, 유도등을 쫓아 벽을 따라서 행동.

갇혀 버린 경우는

문의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 복도는 고온상태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문에서 나가지 말고, 물에 적신 타올 등으로 문틈새 등을 꼭 틀어막아 방어하고, 창문을 열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상황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알립니다. 큰 소리로 소리치지 못할 경우는 호루라기나 물건을 두드려서 알리도록 합니다.



피난할 때는, 어린이나 고령자, 환자 등을 우선!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 둡시다.

소화기 종류

소화기에는, 어떤 종류의 화재에 적합한 지를 나타내는 라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목적에 맞는 소화기를 선택합니다. 일반가정의 경우는, 만능 타입의 분말소화기나 강화액소화기가 편리합니다.

소화기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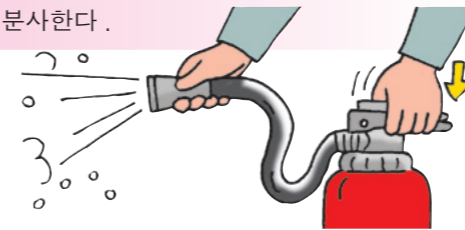
1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어, 위로 잡아 뺀다.



2 호스를 빼서 불기가 있는 쪽을 겨눈다.



3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분사한다.



조준방법

1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조준한다.

2 허리를 낮추고 낮은 자세에서 조준한다.

3 연기를 피하고, 불길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다.

4 불길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불길을 빗자루로 쓸듯이 좌우로 방사한다.



점검 포인트

● 안전핀

- 변형이나 손상은 없는가
- 안전핀 봉인이 끊어져 있지 않은가

● 호스

- 금이 가거나, 열화되거나, 느슨해지는 것은 없는가

● 본체·일부분

- 녹이 슬거나 변형은 없는가

●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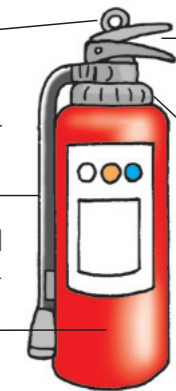
- 변형이나 손상은 없는가

● 캡

- 변형이나 느슨함은 없는가

● 게이지가 있는 경우

- 압력을 나타내는 바늘이 규정치(녹색) 내에 있는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활용하자

화재 발생을 빨리 알아챌 수 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

연기나 열이 감지되면, 경보음으로 알려줍니다. 평성 16년(2004년)의 소방법 개정에 의거하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연기입니다!

연기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들이마시면 중독 등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평성 13년(2001년)에, 44명이나 희생된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빌딩화재에서도, 그 대부분이 연기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화재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오른쪽의 포인트에 주의하면서 대피해 주십시오.



● 물에 적신 타올이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는다. (어려운 경우는, 넥타이나 옷을 대용)

● 가급적 자세를 낮춘다.

● 계단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간다.

● 거리가 짧다면, 숨을 멈추고 단숨에 달려서 빠져 나간다.

● 시야가 흐려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따라서 대피한다.